

세계화와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해석

-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중심으로 -

신 은 희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 목 차 >

I. 들어가면서	V. 사회통합을 향한 남북의 ‘가로지르기 문화성’ 해석
II.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방법론	VI. 나가면서
III. 유기체적 연대로서의 사회통합	참고문헌
IV.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국제화(Glob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통일(Unification), 문화(Culture)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하여 남북의 사회통합을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한 글이다. 세계화의 개념을 문화적 복합 연계성에 두고 다중문화 간 발생하는 문화 변동 현상을 남북의 상황가운데 접목시켜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의 다양한 문화갈등과 변화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의 문화 변동과정이 특정 지배문화가 하부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의 균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문화들이 다양한 상호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 과 ‘소통’ 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층을 창조해 내간다는 인문학적 문화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조하는 문화 흐름의 속성과 문화가 학습되어 전수되는 과정, 변화의 철학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문화변용의 사례와 궁극적으로 변혁을 향해 끊임없이 타문화와의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의 논의에서는 대표적인 기능주의자, 신기능주의자, 조직통합주의자, 다원적 통합주의자의 핵심개념을 통하여 남북의 이중문화 구조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유기체적이며 순환론적인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변동현상을 분석하여 남북의 ‘가로지르기 문화성’ 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I. 들어가면서

이 논문의 목적은 문화와 문명이 교류하고 융합되는 세계화 시대에 남북의 사회통합 방향을 문화적 차원에서 해석함으로써 한반도의 미래지향적인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인문학적 차원의 문화이론적 해석을 시도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게 될 ‘세계화’의 핵심개념은 문화적 차원의 “복합연계성(complex connectivity)”이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삶을 특징짓는 상호연계 및 상호의존의 그물망이 유례없이 복잡적이고 밀접하게 연결, 구성되어 새로운 문화 혹은 문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변화의 움직임을 뜻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세계화 과정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특정 지배문화가 하부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의 균일성(uniformity)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문화(localities)들이 다양한 상호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합연계성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문화’의 핵심개념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창조해 온 고유한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로 삶의 형태와 정신세계에서 파생된 일련의 ‘가치화된 문화’를 뜻한다. ‘문화’란 용어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학문영역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하는 남북의 문화주제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문화의 의미란 오늘날 남북사회에 현상적으로 자리 잡은 독특한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가치화된 문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자 한다. 즉, 각각의 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측정되고 소통되어 온 윤리적 기준과 가치판단의 잣대에 의하여 규정된 ‘윤리적 도덕론’(ethical ontology)에 기초한 문화적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날처럼 세계 사회가 일련의 복합 연계성으로 재구성되는 세계화 시대에 남북사회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사회통합의 방향은 상호적 연결망을 통한 새로운 평화문화 혹은 통일문화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창출을 시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논문에서는 “Intercultural Communication” 해석학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고자 한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방법론은 문화를 열린 유기체의 세계로 이해하고 접근하여 상충되는 이중 혹은 다중의 문화층이 문화변용과 문화학습의 법칙에 따라 역동적으로 새롭게 변형되고 갱신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문화이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정신문화와 가치문화를 추구해 온 한반도의 상황에 응용될 수 있는 문화 해석학으로, 남북의 이질적 문화현상을 대립과 마찰의 부정적 관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창조적 과정으로 인식하게 한다.

본 논문의 주요 구성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의 주요개념을 이해하고 문화의 속성 및 문화변용 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기초로 사회통합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순환론적인 유기체적 통합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남북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 변동 현상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에 근거하여 예측 및 분석하여 남북의 사회통합을 향한 ‘가로지르기 문화성’ 혹은 ‘상호문화성’의 순기능과 역기능적 측면을 도출해 낸다. 끝으로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확대발전을 위한 남북문화의 재사회화 과정과 미래지향적 통일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본다.

II.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방법론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란 무엇인가? 이는 문자적으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란 뜻으로 한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창출된 메시지의 만남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인식과 가치판단, 그리고 상징체계가 서로 다른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층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의 문화’, ‘흐름의 문화’ 형성과정을 의미한다(Mppn 2008, 11). 이러한 문화 간 만남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궁극적으로 사회변혁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관계나 집단 혹은 국제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에게 적응하기 위해 메시지를 창출하고 상대측의 메시지에 반응하며 크고 작은 문화원형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슈나이더(Schneider)와 실버맨(Silverman)은 “오늘날의 글로벌 세계에서는 다른 사회를 비난하면 오해와 폭력을 야기 시킨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Schneider 1997, xxi). 호프스테드(Hofstede) 또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간의 생존은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Hofstede 2001, 15). 이러한 의미의 적용은 개인뿐 아니라 개인이 소속되어 온 특정 문화 공동체도 해당이 된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문화 간 이해와 의사소통은 매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생존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서 전제하는 문화의 속성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문화는 “모든 것이다”라고 표현한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대표학자인 사모바(Samovar)가 강조하는 문화해석의 중요성은 문화의 “주관적 요소”에 있다. 즉, 어떤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 세계관, 믿음, 태도,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근원적인 철학과 윤리는 구성원들의 정신세계에서 ‘인식론적 우선권’(a priori of epistemology)을 갖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성질을 마르셀라(Marsella)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공유되고 학습된 행위이다. 그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생존, 적응, 성장, 그리고 발전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문화에는 외적인 표상(유물 역학, 제도) 그리고 내적인 표상(가치관, 태도, 지각/정서/감각 스타일, 의식유형 그리고 인식론)이 모두 있다.
(Marsella 1994, 166-167).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조하는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학습된다. 둘째, 문화는 세대를 거쳐 전수된다. 셋째, 문화는 상징을 토대로 한다. 넷째, 문화는 변한다. 다섯째, 문화는 통합적인 제도이다. 이처럼 문화는 개인적 산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되어 나타는 반응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관찰되는 문화성의 변용과 변혁은 어떤 정치적 합의나 목적을 위해 단시일 내에 급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문화가 아닌 것이며 점진적이고 완만한 역사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화적 침식작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삶 속에

창출되어 나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문화침식의 철학적 기초는 ‘변화의 철학’이다. 사모바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토스(Heraclitus)를 인용하며 변화의 낙관적 입장을 강조 한다: “만물은 흐른다. 정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뜻하는 변화는 자연과 우주의 변화 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문화의 끊임없는 변화 과정 그 자체에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적 문화 사이의 개선과 변혁을 전제하며 접촉과 소통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변혁의 낙관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세계를 다르게 본다.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세계가 실체라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그것은 환상이라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고 믿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일시적이라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체는 같지 않다(Sitaram and Cogdell 1976, 50).

따라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자연스러운 문화변용을 추구한다. 하빌랜드(Haviland)는 “문화변용은 문화가 다른 집단들이 서로 강도가 센 접촉을 직접적으로 가짐으로써 한쪽 또는 양쪽 집단의 고유문화 방식에 지대한 변화가 생길 때 일어난다”(Haviland 1982, 427). 이처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적 반응을 본능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변화의 필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며 문화의 변용 가능성은 미래 문화의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문화 변용은 정제된 유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변화의 철학에 기초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리 폐쇄적인 공동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문화변용의 희망이 있다고 진단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코드를 일방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것을 기본 윤리로 본다. 왜냐하면 변화를 향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그 자체가 궁극적 실체이며 평화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공동문화’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는 자신이 유지해 온 고유한 문화와 외부적 문화접촉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새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공동윤리’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하는 윤리관이기도 한데 호웰(Howe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의 윤리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이것이다. 윤리적 표준은 특정한 문화의 생산물이다. 따라서 어떤 집단에 중요한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기본적 행동은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결과 하나의 행동 방식이 한 문화에서는 높은 도덕적 가치-올바름-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문화에서는 윤리적 중요성이 없으며, 그리고 제3의 또 다른 문화에서는 소극적으로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에,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서는 안 된다(Howel 1982, 179).

이같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은 다문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이 지닐 수 있는 ‘다문화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의 문화적 합법성을 추구하여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충돌과 긴장을 최소화 하며 문화진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Kymlick 1995, 11). 동시에 다문화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문화의 형태는 구성원들의 문화 코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적 유기체’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유기체 형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자연스럽게 느슨한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시민권적인 모델은 그동안 상극의 관계로 설정되어 온 남북의 문화층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기초로 남북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문화적 기틀은 어떤 형태이어야 할 것인가?

III. 유기체적 연대로서의 사회통합

1. 통합이란 무엇인가?

통합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¹⁾ 본문의 강조점은 이러한 통합의 다양한 정의들과 모델들이 남북의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통합개념을 가설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통합은 ‘제도적 차원’의 통합을 뜻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총체적인 연합을 통하여 동질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제도적 완성으로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사회통합의 이론들은 학자의 학술적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포진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론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학계에서 사회통합 이론 분류에서 대표성을 지닌 이론가의 핵심논지만을 살펴보고 남북 사회통합의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 모델들을 적용해 보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기능주의의자 미트라니(Mitrany)의 통합, 신기능주의자인 어네스트 하스(Ernst Haas)의 통합, 조직통합주의자 에치오니(Amitai Etsioni)의 통합, 다원적 통합주의자 칼 도이치(Karl Deutsch)의 통합개념을 들 수 있겠다.

첫째, 미트라니가 주장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이란 국제기구와 비정부간 기구 연구의 중심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힘의 정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도전해 온 입장이기도 하다. 즉, 국가들 간의 기능적이고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정치적 영역과 이분법적으로 전개되는 것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국가들 간의 공동과업을 통하여 정치, 사회, 경제, 기술

1) 정치학 영역에서 통합개념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에 발전된 이론이다. 정치학적 차원의 통합이란 국제사회에서 지역 간,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중요시되었다. 전쟁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단위체가 하나의 사회단위로 이진해 가는 경우로서, 상호이익을 증진하며 평화구축을 위한 연대이론이었다. 사회학에 있어서 통합이론은 유럽의 상황에서 특히 발전하여 왔는데 이는 지역 간 국가 간의 통합보다는 한 사회 내의 지역 간 통합과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정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통용되는 통합이론들을 마이클 하스 (Michael Haas)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류주의 (Transactionalism) 통합이론가로 로저 콕 (Roger Cobb), 찰스 엘더(Charles Elder), 부루스 로세트 (Bruce Russett); 기능주의 (Functionalism) 통합이론자로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 신기능주의 (Neo-functionalism) 통합이론가로 어네스트 하스(Ernst Haas), 조셉 나이 (Joseph Nye); 조직이론 (Systematic theory)통합이론가는 아미타 에치오니(Amitai Etsioni); 체계분석 (Structural Analysis) 통합이론가는 레온 린드버그(Leon Lindberg), 스튜어트 샤인골드(Stuart Scheingold); 다원주의 (Pluralist) 통합이론가는 칼 도이치 (Karl Deutsch)등으로 구분된다(Pentland 1973, 21; 오기성 1999, 51-52).

분야의 총체적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간의 통합과정을 시도하는 입장이다.²⁾ 기능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공존’ 그 자체보다는 ‘공동의 활동’을 더욱 강조하여 국가 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신기능주의자인 하스의 통합개념은 정치적인 통합의 성격이 강조된 것으로 정치인들의 충성과 정치적 행위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가형태를 창조하도록 요구받는 과정에 가깝다. 이 통합개념은 정치적 리더쉽과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신국가 건설의 모형을 제시한다(Haas 1958, 27).³⁾ 신기능주의자의 입장은 기존에 기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비정치적 영역의 정치적 극대화 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치적인 영역의 의식적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통합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이 보조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조직통합주의자인 에치오니의 통합개념은 ‘계기적 선택모델’(sequential-option model)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1단계는 융합된 사회, 2단계는 분화된 사회, 3단계는 분화된 사회의 재통합 과정이다. 이 때 통합에 작동되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은 통제권, 분배 결정권, 시민연대 중심의 리더쉽으로 압축되고 사회의 재통합은 구성원들의 심미적 차원 즉 문화적 차원의 소통과 연결과 함께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Etzioni 1965, 18; Etzioni 1968, 572).⁴⁾

넷째, 다원적 통합주의자인 도이치는 통합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그 주민들 사이에 ‘평화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기대를 ‘오랫동안’ 확인하기에 충분히 강하고 광범위한 ‘공동체의식’(community sense)과 제도 및 실천성을 갖게 되는 상태의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체의식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개개인이 느끼는 개별적 변화인식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사회적 규범으로서 수용하는 새로운 윤리관과 가치문화로의 전향이 ‘평화적 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슈들을 앞서 하스와 에치오니의 통합개념이 특정 조건과 함께 형성되는 ‘과정적 결과물’로서의 통합을 강조한다면 도이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차이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 그 자체를 통합의 중추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호적 안보가 보장된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도이치의 통합은 가시적인 정치적 형태보다 통합의 질적인 문화적 심미적 측면을 더욱

- 2) 기능주의 접근법은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그는 “우리시대의 문제점은 국가들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분리되어 지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는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미트라니는 통합은 자체의 내부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들이 어떠한 제한적인 분야에서 협력하여 그 협력을 포괄하는 분위가 조성되면 통합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다른 분야의 협력까지 이르게 된다고 강조한다. 기능적 통합이 부분통합을 거쳐 전체통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통합의 자동성(automaticity)을 인정하는 입장이다(Mitrany 1966, 92-98).
- 3) 하스는 통합의 의미를 “몇 개 국가의 정치 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심, 기대 및 정치적 행위를 명백히 구분되는 몇 개의 국가의 장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전화하도록 설득당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통합의 정치적 함의를 강조하고 있다. 즉, 통합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교류와 상호이익을 얻기 위하여 기존에 국민국가 독점하고 있던 물질 토대와 국민들의 정체성과 충성심을 새로운 정치적 제도중심으로 이전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 4) 에치오니는 분화된 사회가 재통합 과정을 시작하면 다양한 단위 내부 메카니즘과 초단위 메카니즘이 정치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즉, 이 메카니즘은 분화된 단위들을 복합적이면서도 통합적 전체로 연결시켜 유기체적인 사회통합을 유도해 나간다고 전망하고 있다.

강조한 것이다(Deutsch 1957, 57).⁵⁾

위의 대표적인 네 가지 통합개념에 기초해 볼 때 남북의 통합 방향은 일차적으로 단계별 통합으로 나아갈 것이며 분야별 영역별 범위가 확대되어 발전하는 ‘과정적 통합’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치적 설득이 필요한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의 정치 시스템의 대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남한이 얼마나 북한식 개혁개방을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통합과정의 속도와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에치오니가 제시한 세 종류의 조건도 남북의 통합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이지만 결국 통제권, 결정권, 리더십의 주체가 누구이며 국가권리에 대한 합의된 결정기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기능하는가에 따라 통합의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장기화 될 수도 있다. 도이치가 제안한 안보가 담보된 질적 차원의 통합은 남북의 당사자들 뿐 아니라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협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남북의 사회통합은 장기적 통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⁶⁾

특별히 본 논문의 주안점인 사회통합의 문화적 측면만을 고려해 볼 때 통합의 영역은 남북 문화 간 ‘가치문화’의 호환성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가치화된 문화의 호환성 문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증대를 필요로 하며 남북의 ‘주요가치’를 일치시키며 또한 유기적 연대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문화적 통합은 문화적 표현과 양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어떤 공통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단위의 관련계층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신념의 창출과 함께 문화변용의 폭은 극대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체적 연대의 사회적 동질성은 문화통합과정에서 ‘통합 잠재력’으로 순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Nye 1971, 94-95).⁷⁾

- 5) 도이치는 통합의 의미를 비폭력적인 갈등해결, 평화적인 사회변화가 기대되는 안전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다. 도이치에 의하면 통합은 단순히 구성원들과 정부가 하나의 단위체로 합쳐진 형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의 제창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6) 문화적 질적 합의에 주력했던 사례로 예멘의 문화통합을 들 수 있다. 통일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예멘의 경우는 통일정부가 만든 헌법 제3조에 기초하여 대단히 상호주의적으로 진행되었다. 통일정부는 이슬람 문화권의 문화적 공통분모를 기초로 남북예멘에 존재해왔던 기존의 고유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민족적 동질감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의 결과로 독일의 경우처럼 남과 북예멘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경시하는 사회풍조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 수 있었다. 예멘의 경우는 독일에 비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제한해서 보면 대단히 준비된 통일과정을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멘은 분단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이질감과 가치구조의 이원화가 통일에 제일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초기 통일과정 논의부터 사회문화적 통합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협상에 왔다. 두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문화, 교육, 공보 업무조정’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지속적인 교류와 교환방문을 통해 인식과 인정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면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문화적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예멘의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관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양상이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다(Wenner 1991, 131-132; 민족통일연구원 1993, 14).
- 7) ‘통합잠재력’이라는 개념은 나이(Nye)에 의하여 고안된 것인데 통합잠재력은 ‘과정 메카니즘’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교류의 증가, 공동과업들의 기능적 연계, 각 집단과 이익단체의 제휴, 엘리트의 사회화, 지역집단의 형성, 이데올로기적-동화적 호소, 과정상에 외부행위자의 개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2. 유기체적 연대로서의 통합

21세기 남북의 통합 형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서구화된 문화유형인 이분법적인(dualism) 구조에서 탈피되어 유기체적 모형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만들어 가는 통합의 사회적 기능은 정치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정치적 리더쉽과 시스템에 따라 정치적 영역에서 일반 시민 사회의 참여가 통제되고 제한받기도 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와 열린 시민사회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정치성과 문화성은 통진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치적 영역은 비정치적인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문화적 침투가 가능하며 사회문화적 영역 또한 필요에 따라 정치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합의 접근법은 유기체적인 순환론적 모델이 더욱 현실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북한 내부가 만들어 낸 독특한 정치양식으로 인하여 정치성과 문화성의 일치를 강조하고 정치 문화적 결정권을 특정계급이 독점하는 경우 신기능주의적 차원이 기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북한의 정치성이란 관료중심주의와 함께 학습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기능하는 인민대중의 문화적 기반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면에서 북한의 경우도 남한의 경우와는 다른 종류이나 분명히 정치성과 비정치성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순환론적으로 연결되어 합치되는 차원의 통합이란 ‘하나’의 공동체를 양적인 차원의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연대로서의 하나인 것이다. 즉, 문화적 해석학을 통한 사회통합의 모형은 ‘한 개’의 공동체이기 보다는 ‘복합적 연계성’으로 구성되는 유기체적 통합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동질의 한 개 집단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과 동질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이중 혹은 다중의 문화층을 유기체적인 연결로 사회적, 국가적, 또는 정신적 차원의 ‘민족 관계망’을 확대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유기체’로서의 통합 공동체에 가깝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통합의 개념은 ‘공존’과 ‘공동의 활동’이 전제된 ‘남북주도 협력형 통합’으로 남북의 문화적 고유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합의 출발점으로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질적 문화 접이지대’는 미래 통일문화의 창조적 분열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⁸⁾

8) Karl Otto Hondrich는 이러한 상호주도적 모델을 “상호의존모델”(Interdependent model)이라고 규정하고 통독과정에서 일방적 “지배모델”(Dominant model)이 우위를 점유하면서 발생했던 사회적 불안요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독주민의 80% 대다수는 자신들이 ‘이등국민(second citizen)’이라는 정신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지니며 살고 있다고 밝혔다. 동독주민에 대한 편견과 경시풍조는 서독 기업인들이 동독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시대 실업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교육에 익숙했던 동독주민들은 정신적 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에도 구동동인들의 70%이상은 사회주의가 결코 실패했다고 믿지 않는다. 다만 사회주의 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적 부재와 리더쉽의 한계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우호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분열과 경시풍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온전한 형태의 ‘문화적 전향’이었다. 구동독인의 사회주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 보다는 자본주의로의 철저한 체제전환을 요구했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정치교육을 강화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구동독인의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 내 이루어진 자본주의 문화적 합병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과 사회문화통합과정에서도 반드시 발생할 문제

IV.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1.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한사회의 문화적 변동현상

문화적 차원의 남북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남도 북도 한쪽의 일방적인 ‘지배문화’ 구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원적 통합주의자 도이치가 주장한 바처럼 사회통합의 문화적 과정은 특히 일원적 방식이 아니라 다원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통합의 초기단계일 수록 문화적 이중성과 다원성은 성격은 두드러지는 것이 문화성의 특징이다. 정치군사적 차원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에 있어서도 북한은 남한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중심의 자유, 개방주의 사회문화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과거 남과 북이 반세기 넘게 너무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왔기 때문에 한 쪽의 일방적인 지배문화 구조는 현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며 오히려 남북의 지속적인 문화접촉과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문화특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한반도의 통일정책과 정치구도의 역학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일 것이어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지형적 지대가 열릴 것인지에 관한 여부는 미래과제로 열어둘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사회통합의 지형적 환경이 특구의 형태이건 완전개방의 형태이건 지형적 조건을 예외조항으로 남겨두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에 근거하여 예측 가능한 문화적 유동성과 문화 변동현상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1) “경계의 문화”

사회통합과정에서 남북사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특징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계의 문화’이다. 여기서 경계의 문화란 지극히 상호적인 관점으로 작용한다. 즉, 무

이기 때문에 통일의 정치적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북에 대한 경시풍조를 극소화할 수 있는 남한주민의 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연방정부가 통합과정에서 중요하게 실천하였던 정책은 구동독인들이 성취했던 전문분야에 대한 절대적 인정제도였다. 예를 들면, 구동독인들의 학력, 자격,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박탈감을 극소화하고자 했다.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대상 직업과 전문직업의 도제 시험을 관청의 확인 없이 상호 동등하게 인정했다. 독일통일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일조약의 내용(통일조약 제37조 교육)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독 내에서 취득되거나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졸업 자격 또는 자격증은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계속 유효하다.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또는 서베를린을 포함한 서독의 다른 주들 내에서 시행된 시험이나 취득한 자격증들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동등가치 인정은 신청에 의해 해당 관청의 확인으로 결정된다. 시험 또는 자격증 동등 인정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법률적인 규정 및 조약 내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로부터 취득되었거나 국가가 공인하는 또는 수여받은 대학직업 명칭과 등급 및 학위의 사용 권리는 계속 유효하다.” 이처럼 동독지역에서 취득한 직업교육 및 전문교육의 졸업증 및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구서독의 지역에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동독인의 사회적 인정 기회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남과 북의 사회통합 과정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Hondrich 1991; Beck 1991, 21; 김일무 1995, 45).

역이나 교역을 담당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을 경계할 것이며 북한사람도 남한사람을 일정정도 경계하는 경계의 문화성이 심화될 것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에 의하면 이러한 ‘경계의 문화’ 현상은 문화차이에서 파생되는데 이는 남과 북의 문화적 심층구조에서부터 돌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비단 남북의 문화차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면 발생하는 문화변용의 초기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리안 계통의 인종주의 집단이 독립 기념일 날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랍권과 비아랍권 학생들의 사소한 말다툼이 전면적 대규모 소동으로 번지거나, 북미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이름들이 마스코트나 상업적 이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항의와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문화적 심층구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an Diego Union Tribune 1998, A-8; Ling-Ling 1999, B-11; Leo 1999, 16). 이러한 선례들은 상이한 문화 간 접촉에 의해서 서로 다른 문화적 신념이 충돌할 때 경계의 문화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으며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문화심층구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헌팅턴(Huntington)은 “다른 문명권의 사람들은 신과 인간, 인간과 집단, 시민과 국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관계에 대해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 권리와 의무, 자유와 권리, 평등과 위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고 설명한다(Huntington 1993, 22). 즉,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에서는 모든 문화는 사회의 제도들을 생산하고 사회의 제도들에 의해 재생산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요소들을 소생시키는 각각의 공동체 제도와 문화적 신념에 대하여 먼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문화의 선행학습은 경계의 문화의 폭과 깊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2) “문화편견과 문화 양극화 현상”

사회통합과정에 있어서 북한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남북문화 사이에서 융합되지 못하는 ‘문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남한 사회에서 북한 문화나 북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이등문화(second culture) 혹은 제3세계 등급으로 취급하려는 문화편파주의를 조장하는 현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대다수의 남한 시민들은 북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문화의식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 올 수 있다. 현대북한사회가 경험하는 빈곤, 정치체제, 후진국형 사고방식, 낙후된 산업발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북한의 문화성 자체를 열등하게 전제하는 우월적 문화의식이 남한 사회에 고착화 될 수 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에서 문화적 편견은 문화변용과 문화변혁의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요소로 지적한다. 문화해석학자인 매키오니스(Macionis)는 집단적 문화편견 현상은 지극히 ‘비이성적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견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완고하고 비이성적인 일반화와 같다. 편견은 사람들이 직접적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이성적이다. 편견은 특정한 사회계급, 성별, 성적태도, 연령, 정치적 관계, 인종 혹은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할 수 있다(Macionis 1998, 217).

이처럼 문화적 편견은 감정적 구성요소를 구성하여 고정관념 속에 포함된 타인들에 관한 신념,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의 영역까지 자동으로 판단하게 되어 영원한 적대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지적한다(Brislin 2000, 209). 편견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자신이 싫어하는 집단을 회피하거나 그 집단과의 접촉에서 탈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문화 양극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남북의 경우에도 남한시민들의 의식은 국제여행과 유학 및 연수 등으로 점점 국제화 물결에 편승되고 세계의 중심에 가까워지는 반면에 경제적 지지기반이 약한 북한 시민들은 여전히 지역적 사고에 머물면서 그러한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면으로 전통 복고주의 문화성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문화는 독선적 자국주의 의식에 매몰된 문화층이라는 편견이 제도적 우월감과 권력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Levin 1975, 10).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북한 시민들이 남한 시민들처럼 자주 해외여행을 하며 해외유학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를 습득하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구촌의 가치와 윤리의식을 자생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북한 시민들의 직접체험보다는 문서나 타인의 간접정보를 통해 국제적 문화성을 배워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화적 제한성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낙후성과 소외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화적 소외감은 남한 시민들과의 우호적인 친선관계를 개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시민들은 빈곤한 반면에 정치적 자존감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우월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적 상태가 강해질 수 있다.

남북한이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북한 시민들은 개방시대에 경험하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폐쇄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종래의 위로부터의 지배적이거나 사회구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 차원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복구와 함께 창출되는 고급문화화를 추구하게 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스테레오 타입이 문화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3) “고대전통문화의 재창조 현상”

남북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변동으로 가장 긍정적인 영역은 아마도 고대전통문화 가치의 확대발전 현상일 것이다. 고대 전통문화와 민족유산의 보존과 발굴 작업은 그동안 남북의 공동 작업 중 가장 활발한 영역이었다. 남한은 중국의 동북공정 이슈와 독도문제를 계기로 북한과의 문화유적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관리한다는 데 근본적인 이견이 없다. 북한도 90년대 초반부터 역사복원과 전통문화 재창조의 지침아래 단군릉과 동명왕릉, 민속박물관, 개성의 고려박물관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전통문화의 보존과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평양을 민족의 발상지로 이해하는 ‘대동강 문명’이론을 소개하고 있다.⁹⁾ 이는 세계4대문명

9)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실장인 장우진 교수는 고조선은 단군이 세운 고대국가의 도시이며 평양을 중심으로 고대유적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평양시 상원군 후우리에서 발견된 ‘검은모루유적’은 인류여사의 시작과 함께 민족사의 시원을 알려주는 유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류진화발전과정에서 발견되는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의 동굴유적인 ‘력포사람’, ‘덕천사람’ 유

으로 알려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문명과 함께 한민족의 인류발상지라고 주장하는 가설적 이론이다. 대동강유역에서 발견되는 초기 인류의 화석과 유적을 중심으로 구석기 문화가 황하 문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조선식’ 인류발상지라는 것이며 고조선을 인류문명의 최초도시 중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 입장이다. 고조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일 문화를 공유하는 부족들이 비슷한 언어, 문화, 생활양식을 영위하며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조선민족문화를 형성해왔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이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민족복원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과학시설과 다양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민족고대사 발굴 작업을 미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남쪽에서도 중국의 동북공정 이론과 함께 북한을 중국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중국식 대북정책에 반발하여 단군과 고조선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고대문화 복원사업은 남북의 문화 접이지대가 근접성을 가질수록 더욱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남한의 경우 드라마와 영화 등 문화예술영역에 있어서 ‘한류’(Korean wave)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팽창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대문명의 소재와 복원사업은 북한의 문화지역을 문화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뿐 아니라 남북이 동질감을 극대화 하여 ‘신고대문화창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민족복원 의식은 전통 민족명절을 과거와는 달리 북한 사회도 설날이나 추석등과 전통명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현재 조선식 사회주의 전통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의 명절은 크게 ‘사회주의 명절’과 ‘민속명절’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민속명절은 1960년대만 해도 ‘봉건잔재는 뿌리뽑아야 한다’는 교시아래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과거명절을 모조리 내모는 방향을 민족허무주의’로 재규정하고 전통적인 명절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책변화가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민족명절을 강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명절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일반 주민들의 삶 속에서는 전통명절과 차례를 강조하며 지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김진계 1990, 250). 따라서 남북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발전은 남북이 동시에 강조되면서 재창조할 수 있는 통합의 절정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남북공동의 노력은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역사왜곡과 문화 신식민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사회에도 긍정적인 문화의식변동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의 공동연구와 공동으로 대처하는 연대는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남한사회에 북한의 민족주의 이해를 문화적 관점에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이 더욱 강조되는 국제화 시대에 남북이 공동 발굴하는 신고대문화의 연구와 활용은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적과 대동강 유역의 ‘승리산사람’ ‘만달사람’ ‘륙곡사람’등등의 유적들은 지적하며 민족사의 시원을 알리는 가장 오랜 유적들이 평양부근에서 발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에서 인류화석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었음과 유인원이 갓 분리된 최초의 인간형태의 모습을 갖춘 인류진화의 발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하여 평양중심의 대동강문명은 인류문명발상지의 하나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우진 1994, 141-147; 리규준 2003, 466; 서영대 1995, 643).

4) “한국적 언어문화 변동 현상”

남북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도전받을 영역은 남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서구화된 언어문화의 변동이 예견된다.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의 해독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서구용어들이 난무하는 것을 문화개혁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용어가 공식화될 때는 인민대중이 중심이 되어 인민들이 선택한 순수한 조선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간판들이나 대중적 문구들이 영어나 외래어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에 남한의 대부분의 간판이나 명칭들은 영어나 불어 등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들조차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정신이 각색되어 대중적 지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남한의 언어문화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지나치게 서구화되어 버린 남한의 언어문화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일으켜 언어문화영역에서도 일정 정도 민족적 정서를 반영하고자 하는 복고주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다.

5) “문화 상업화 현상”

남한 문화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문화에 대한 ‘문화 상업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북한문화를 다원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배우려는 시민단체의 통일운동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염두 해 두는 사업가들에 의한 문화점유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문화산업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문화의 콘텐츠들은 상당히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 중에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성시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지도층에 관한 상품화도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때론 북한의 수뇌부 인물들이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나 코믹물의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이슈일 수 있다. 남한의 문화산업의 방향이 남북의 통일과 연관된 문화교육의 성격보다는 수익률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 콘텐츠를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선정적이거나 코믹화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회통합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6) “민족주의와 종교주의 갈등 현상”

오늘날 한국사회는 종교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전국지도에서 사찰표기 누락문제를 시작으로 ‘불교계 편파 논란’으로 전국의 승려들이 촛불집회로 나오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¹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독교정책이 불교를 경시했다 불교 측 입장이 대규모 종교시위로 번졌던 사건이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였으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나 종교전쟁은 거의 없었던 다원적 종교문화 사회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남한 내 이러한 종교 갈등 양상은 최근 종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정치성과 결합

10) 2008년 8월말부터 9월 말까지 이명박 정부는 ‘불교계 종교편파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교계 촛불정국을 초래하게 되었다.

하면서 사회문제로 야기되었다. 비슷한 문화패턴이 남북문화층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남북문화가 접합되면서 또 다른 문화갈등 요소들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의 '민족제일주의' 문화 의식과 남한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종교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 양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단군상을 우상으로 규정하여 갈등관계가 있었을 때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 대변인은 남쪽의 기독교인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민족적 종교주의자들과 대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일부 불순분자들에 의해 우리민족의 우리 시조인 단군이 실체한 인물임을 부정되고 초중등학교들에 세워진 단군상이 심히 훼손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남조선의 그리스도교의 일부단체들을 비롯한 몰상식한들이 벌이고 있는 단군부정행위는 민족의 원시조를 모독하고 민족과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족 범죄행위이다...단군을 숭상하는 남조선의 남조선의 민족종단들과 민간단체들은 단군역사와 단군상 수호투쟁을 벌여 인민들에게 민족성을 심어주고 민족의 주체성을 세워야 한다.¹¹⁾

이처럼 북한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남한의 민족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는 종교단체들과는 대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 단군상이 문제가 되면 김일성/김정일상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민족주의라는 우산 속에 정치성과 종교성이 결합되어 있는 북한의 민족이해 종교이해는 통일문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화현상이라고 예견된다. 북한의 경우 종교가 민족을 우선할 수 없으며 민족성은 정치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소위 민족 중심의 종교문화와 남한의 순수종교지향적 종교문화는 이상승배 논란과 이단논쟁, 교주논쟁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종교주의의 갈등국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동시에 이러한 갈등현상은 서구화된 종교성의 문제점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기독교 쇄신운동이나 배타적이고 지나치게 서구화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민족주의적 종교관에 입각하여 토착화문화 운동과 자문화 갱신운동이 강화될 수 있다.

2. 사회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문화변동

현대 북한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대단히 정치적 성향이 강하며 정부의 지향점과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통합과정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통일된 문화의 모델을 어떠한 모형으로 잡고 남한과 협력하고 협상하는가가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경제 분야와는 달리 북한 내 문화변동은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히 정신적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면에서 북한 지도부가 전면개방을 시도 할 가능성이 제일 낮은 영역으로 예상된다. 경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실리주의와 연결되어 인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급진적인 개방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영역은 실리주의보다는 '사상의 개조'와 '세계화' 흐름 속에 존재하는 서구적 요소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면에서 북한의

11) 북조선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대변인 담화 내용으로 1999년 11월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하였다.

입장은 더욱 느린 변화와 수용을 선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진보된 왕래와 무역을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 하다보면 북한의 지도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문화적 변동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에 의하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문화유동의 필연성’(Adler 1997, 238)에 해당된다. 즉, 문화유입은 정부의 통제가 극대화 되어도 끊임없이 교류하고 다양한 접촉과 만남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변용의 양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모든 문화가 지닌 속성이라는 것이다. “진흙으로 벽을 치면 그것이 벽에 달라붙지 않을지라도 흔적을 남긴다”는 아랍속담처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은 흔적을 남기고 결과를 남겨 문화개선의 물줄기를 연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변화가 사회혼란과 불만세력으로 등장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일정 정도의 순화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문화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했을 때 초기에는 자문화 보호심리와 함께 우월성을 전파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북한과 같이 상대적으로 폐쇄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대주의와 문화제국주의를 국가문화성으로 경계하며 서구화되는 것을 자멸의 길로 여겨왔던 시민들의 타문화의식은 최소한 공식적 차원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은둔의 문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해체 과정”

현재 북한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문화는 정치적 통합단계까지 도달했을 때 점진적으로 해체될 성격이라는 면에서 사회문화적 영역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수정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문화적 차원의 주체정신문화 혹은 일반 인민들의 이데올로기화된 주체 심리상태일 것이다. 북한 내부는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의 결과로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 다인종 사회의 세계화 추세와 호흡하며 일정정도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북의 주체정신세계는 다채로운 문화양식들과 공존하는 이중문화성의 양식으로 남아 있다가 중국의 마오이즘처럼 하나의 ‘오래된 전통’으로 역사 속에 회석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에 의하면 초기단계의 문화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강력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문화층들은 ①자기방어의 단계 ②유사성 추구단계 ③허니문 단계 ④자민족중심주의 해체 과정을 밟아 나간다고 본다(Griffin 1994, 173; Herman 1961, 165). 즉, 문화변용의 과정은 자문화인식의 방어적 형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영국의 속담처럼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는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 노래다”는 함축적 의미와 같이 문화적 친숙함과 잣대는 깊이 연관되어 인간 의식 속에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문화의 유입이 시작되면 내부적으로 형성되어 온 이념과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우월한 방어기제가 작용하여 외부적 문화를 경계하고 친숙함에 의한 내부적 잣대로만 평가하는 자기 방어적 단계가 시작된다.

제 2단계는 유사성의 추구로 이어진다. 문화접촉의 발생과정에서 지속적인 외부문화 유입은 새로운 친숙함을 발생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내부자들은 유사성을 추구하게 된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성격에 비슷한 친구나 문화형태에 관하여 관계성

을 맺고자 한다고 본다. 특히 클리브랜드(Cleveland)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확실하고 안전한 최선의 안식처는 민족의 유사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꼽고 있다(Cleveland 2000, 427). 남한의 경우는 북한과 유사성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조건을 갖고 있으며 남북문화 교류과정에서 유사성의 단계를 통하여 허니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본다.

제3단계는 허니문 단계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기존의 문화는 호기심과 개방을 향한 흥분과 낙관을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는 사소한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노여움 등은 억제되고 새로운 문화유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4단계는 자민족중심주의 해체 과정에 접어들게 된다. 이는 과거 자신의 집단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 집단 밖의 모든 다른 문화들을 자민족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식의 획일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문화적 해석학적 원형구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치적 주체문화를 아리랑과 같은 집단체조 형태의 예술성으로 승화시켜 북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유도해 나가겠지만 점진적으로 문화의 공존양식을 수용하면서 타문화와 함께 상대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대안적 주체문화의 모형을 찾을 것이다. 특히 자민족중심주의가 해체된 4단계 문화변용 단계에 이르러서는 주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문화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고유한 문화적 관점과 시각으로 상대화되어 ‘과거의 유산’으로 전통문화의 장르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변동 단계의 속도는 북한시민들의 정서와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단히 점진적이고 느린 변화로 전이될 전망이다.

2) “조선식 여성주의 문화현상”

북한의 부권문화는 남한의 페미니즘과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상당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는 과거 북한이 ‘전통적인 문화형태’로 남겨둔 유교문화의 잔재들을 필연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의 현대적 조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전통사상의 재해석을 하기 어려웠던 점은 학술의 다양한 비판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통제받았던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다양한 문화와 문학서적과 시사적인 출판물들이 유입되고 연구되면서 북한의 고유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동반하는 문화개혁의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아버이 수령’과 ‘어머니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대가정’이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당’ 이미지에는 전통적인 모성이해가 깔려 있다. 즉,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전통적인 여인상과 어머니상이 근본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사회는 여전히 유교주의적 사상과 관습이 북한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령관을 유지하는 정치적 위계질서로 강화되고 있고 남자는 정치, 여자는 가사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편이다. 남녀평등의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사회로 진출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하여 월등히 부족하며 또한 지위도 낮은 편이다. 한 예로 로동신문은 여성 근로책임자에 대한 인민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 “한달화 동무가 관리위원장으로 농장에 왔을 때, 사람들 속에서는 치마두른 관리위원장이 왔다고 뒤송송했다”(로동신문 1990). 현대 북한 사회에서는 전체 중고위 간부 가운데 여성비율은 소수에 속하며 여성들은 정치

간부 보다는 방직, 식료가공, 피복공업, 상업편의 봉사부분, 교원, 보건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주강현 2000, 153-155).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친선물결’ 영향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일고 있다. 혁명세대의 퇴조와 함께 전후세대의 등장 소위 ‘신’의 출현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허물고 약화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의 새로운 가치관들이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내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여성상은 사회주의 구조와 페미니즘이 결합된 ‘조선식 여성주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 있다. 2002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방송된 <엄마를 깨우지 말아>는 작품은 딸벌이 부부관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며 남성의 권위적 태도를 비판하는 관점으로 북한 여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소재로 하는 <가정>이라는 작품 등은 과거 남성 중심적인 북한사회질서에서는 대중화되기 어려운 주제들이었다(전영선 2005, 121). 이러한 북한의 신문화풍토는 지속적인 세계문화의 유입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권기준의 여파로 남성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사결정구조에 여성의 권리가 부재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북한사회에서도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와 진출과 함께 병행하는 양성평등적인 가정의 미풍양속이 중심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며 결혼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조선식 여성주의’문화 현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3) “개방적 성문화 현상”

소위 조선식 여성주의 물결과 함께 북한의 성문화 역시 더욱 개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의 성문화는 대단히 남성 중심적이며 비공식적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성문화에 대한 의식구조는 전통적이지만 다양한 사회주의식 연회문화에 익숙한 북한 시민들은 계급을 떠나서 가정과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성문화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공식화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의 젊은이들은 1세대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연애관와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애결혼과 자유연애에서 파생되는 성개방풍조가 점점 공식화될 것이며 성문화에 대한 금기사항이 상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유주의 물결은 북한 시민들의 이혼율도 증가하게 만들 것이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재인식 과정을 거치면서 순혈적 민족주의의 경직성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 문화의 필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비정치적 민족예술 문화현상”

사회통합과정에서 남북의 문화교류가 가속화되면 북한의 대중문화는 정치적 선전 선동의 대표성을 가지는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순수 민족예술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대중문화의 정치성을 민족주의 예술로 각색하여 대중문화가 남한식 연예문화 혹은 서구식 대중문화로 변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높아가고 있으나 남한과의 문화예술 교류 과정 중에 ‘자본주의 퇴폐풍조’가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한류움직임은 북한문화의 영역까지 침투될 것이며 북한의 시민들의 대중문화 인식은 크게 개방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자문화 즉 주체문화의 상대화와 형식적 유지는 북한 내부가 우려하는 문화안보측면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국의 문화예술성을 비정치적으로 희석하여 국제문대 속에 부각시킴으로 북한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선전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과 북한이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를 통해 클래식 중심의 평양연주단을 미국무대에 올리고자 노력하는 문화외교의 단면 또한 비정치적 문화교류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적 안보지대가 확대될수록 북한식 획일적 대중문화는 점차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패션, 미용, 성형 등의 새로운 유행문화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문화적 정서를 자극할 전망이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더 이상 정부가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구성을 통하여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5) “정보화와 신문화 현상”

남한 테크놀로지와 정보시대의 문화는 북한 사회에 빠르게 침투되어 북한 시민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북한시민들은 비로소 자문화와 타문화를 다양한 정보 수집을 기초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북한이 국제화 시대에 참여하는데 기본적 국민역량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시민들도 남한시민들처럼 경제적 뒷받침이 허락되는 인구들은 통신문화와 전산문화의 파급효과가 빠르게 진행되어 문화의 과학화 정보화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는 초기 컴퓨터가 소개되면서 겪었던 컴맹문화를 재현하게 될 것이며 북한 엘리트층들은 국제기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전산화문화에 박차를 가하면 새로운 과학의 기술문화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확대 수용하게 되면서 문화산업의 가치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체득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도 전통문화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제화 과정을 거쳐 세계시장 속에서 문화산업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전통문화연구와 응용 풍토가 가속화될 것이다. 자문화의 분명한 정체성이 요구되는 국제화시대를 응용하여 북한은 민족주의 정서를 유지하면서 주체적 관점을 문화산업에 응용하면서 시민들의 서구화 일변도 문화를 대처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6) “다문화 다민족주의 문화현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점진 수용하게 되면서 북한이 전통으로 고집해왔던 순혈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 개념도 상대화될 것이다. 민족주의 정신은 남아있으나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조선민족 중심의 순혈적 민족주의는 다양한 문화권의 교류와 인종관계가 생활문화 속에 유입되면서 점진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이 주장해 온 ‘우리민족제일주의’ 정신은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혈인종의 증가를 민족정신의 훼손으로 규정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며 남쪽에서 농촌 생활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방시대 남북의 사

회문화통합과정이 본격화되면 북한도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다인종 개념은 북한사회문화권에 새로운 문화변동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V. 사회통합을 향한 남북의 ‘가로지르기 문화성’ 해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의 사회문화통합과정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문화적 변동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문화양상을 창출하기도 하고 기존의 문화패턴이 도태되면서 사라질 것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의 문화는 ‘동질의 문화’ 혹은 ‘동반의 문화’로 상호 변화 발전하며 지속적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남북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의 상호적인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란 남북이 공유하는 문화의 동질성은 극대화하고 이질성은 중성화하는 정책일 것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해석학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변화, 변용, 변혁의 발전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호 문화성’과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본다. 문화 간의 얽힘과 교차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가 주고받는 일차원적인 상호교류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층을 탄생시키는 ‘연결’과 ‘이행’의 복합적 관계라는 것이다(원승룡 2007, 65-67).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 해석학에 기초하여 남북문화의 연결과 이행과정의 토대가 되고 있는 순기능적 문화층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가로지르기 문화성에 연결되기 어려운 역기능적 문화층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남북의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순기능적 문화층

남북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장 광범위한 문화적 동질성은 유교문화층에 기초하고 있는 정서적 문화성과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교적 문화권의 관습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가치관과 규범이다. 서구식 문화가 팽배해 있는 남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장유유서의 윤리관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선후배 사이를 나이와 연륜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상 부서이동을 할 때에도 나이를 고려하고 위계질서를 정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는 유교적 문화의 틀에 기초하여 정치적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치적 연대가 가족 구성원의 혈연적 관계처럼 인식되도록 유교적 문화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유교권 문화는 남녀관계의 윤리관과 역할을 구분하는 문화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남한과 북한이 사회적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역할을 가정 문화와 성문화의 영역으로 제한해 보면 북한이 훨씬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여성관은 독립적이거나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 자아를 희생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인 자세를 여성의 미덕으로 여긴다. 그 정도가 남한에 비하면 훨

썬 강한편이다. 반면에 남한의 여성관은 북한보다 훨씬 서구화되어 독립적이며 성적으로도 개방적이다. 연령층에 따라서는 가정보다도 개인의 자아실현을 더욱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여성문화 비교를 좀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 영역에서 평가해 본다면 북한여성의 정치참여나 사회적 활동의식 수준은 남한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욱 적극적이다. 비록 정치적인 지위보장에서 제외된다 해도 북한여성들의 정치의식, 민족의식, 통일의식은 남한여성들 보다 훨씬 높은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이 공유하는 동질성의 문화로서 유교적 문화는 영역의 구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남북의 중심문화로 기능하고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순기능적 문화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교적 문화층의 조직 문화는 집단문화로도 나타나는데 남북의 집단문화의 성격과 콘텐츠는 달라도 사회적 기능성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난다. 남한의 경우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체제나 기업체에서 사회적인 조직생활을 하는 경우 집단문화의 성격은 강하게 나타난다. 이른바 사회적 '왕따'현상은 남한사회가 여전히 집단문화에 깊이 뿌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문화적 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집체적인 공동체 문화를 추구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의 공동체 중심문화는 유교적 윤리관과 함께 쉽게 회석되기 어려운 문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공동체 중심문화는 사회적으로 '온정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온정주의란 공동체의 최소단위에도 적용이 되어 학연과 지연이 기초가 되고 작은 단위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회생활의 기반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온정주의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훨씬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며 현실적 무게감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분당이나 과벌행위를 정치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준 공동체의 개인적 차원의 소규모 집단 문화를 만들어 사회적 과벌로 유지, 존속하는 것은 어려운 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남북의 사회문화통합은 인간 삶의 기본적 양식을 떠나 고려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면에서 남북의 풍류문화 또한 문화적 동질성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이다. 풍류문화라는 성격 자체가 사회학 혹은 문화학의 아류로 취급될 수 있는 비공식적 영역일 수 있으나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차원의 문화이다. 남북의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풍류문화는 고대시대부터 역사적 전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에 내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중요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풍류문화를 즐기는 남북한의 사회적 기질은 현대사회에서는 놀이문화와 스포츠, 문학, 예술의 영역을 통하여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풍류문화의 성향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이 남북의 가로지르기 문화성을 확대시키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은 유교적 문화권의 사회적 기능과 그 안에서 파생되는 부권문화의 지배문화, 온정주의, 계급관계, 민족주의 정서와 풍류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문화통합 과정에서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을 극대화한다는 광의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동질성이라는 이유 자체가 문화의 윤리성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즉, 문화적 동질성임에도 불구하고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윤리적 차원에서 반드시 사회문화통합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의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역기능적 문화층

남한은 해방이후 미군과 소련군에 분할 점령되면서 남한에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문화가 정상문화로 자리 잡았다. 지속적인 분단 상황의 고착화와 함께 남북의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과 문화정책은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다른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남한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문화정책이지만 북한은 문화정책이 국가계획체계의 하위개념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정책을 선전 선동하는 국민선도정책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들이 남과 북의 문화성과 체제 상황을 더욱 이질화시킨 요인들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문화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남한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바탕 문화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기초하는 다원주의 체계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실용성과 자본주의적 문화가 개인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주의적 성향은 국가나 민족의 거시적 관심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유, 가족의 행복추구와 같은 미시적 관심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의 문화적 성향은 개인의 개성이 전제 사회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상적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바탕문화는 강력한 공동체 문화와 당 중심의 지도부층이 선전하는 ‘위로부터’의 가치규범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주체 문화적인 획일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문학과 예술분야에서도 ‘주체사실주의’에 기초하여 문화 활동을 혁명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문화개조론, 인간개조론을 통하여 사회전체가 추구하는 문화론, 인간론이 중심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는 전통문화가 외래문화들과 융합되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명목의 문화변용 현상이 강한데 비하여 북한의 경우는 전통적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남한보다 두드러진다. 다만, 전통문화도 ‘조선식 사회주의’라는 현대화된 혁명문화와의 연결을 통하여 전 국민을 교양시키는 전통으로 이해하는 사회주의 결합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 궁중음악이나 전통무용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민 중심으로 음악전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성 안에 또 하나의 예술적 가치로 추구되는 인민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체문화관의 핵심적 내용이다. 남한의 전통문화가 주로 서구화에 의하여 도전받고 변용되었다면 북한의 전통문화는 인민주의적인 사회계급성 담론에 의해 창조 변용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는 남한의 문화보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민족적 관점이 정권 옹호적 방식으로 ‘수령-당-인민’의 유기체 형태의 조선식 사회주의 중심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근본적인 문화적 이질성이라 하겠다. 남한의 문화적 기능은 시대를 풍자하고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북한의 문화는 정치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성이 정치성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독재와 군사정치의 청산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이룩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일정정도 발전하여 개인의 자발적 문화 창조 활동이 담보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국내외 정세와 급변하는 정치적 요소로 인하여 선군정치가 강조되고 아리랑과 같은 집체주의적인 문화와 예술이 확대되면서 군민일치의 문화가 여전히 정상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역기능적 장기

간에 걸친 문화변용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인 재사회화(re-socialization) 과정을 통하여 변혁될 수 있을 것이다.

VI. 나가면서

이 논문은 남북의 사회통합 과정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문학적 문화이론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통합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갈등과 문화변용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해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사회통합의 모델은 순환론적이며 유기체적인 남북주도형 사회문화통합의 모형이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서 파생되는 미래 통일문화 과정 중에 야기되는 문화변동 양상들을 분석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의 전제는 문화적 차원의 세계화는 ‘복합 연계성’으로 이는 특정문화가 다른 문화를 흡수하거나 일방적으로 변형시키려는 과정이 아니라 ‘과정의 문화’, ‘흐름의 문화’ 속성을 확대하여 문화 간 대화를 통한 자생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변화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체적 사회통합의 문화구성에서 ‘하나’의 개념은 ‘숫자적 하나’ 혹은 ‘양적인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연대로서의 하나’가 되는 문화적 그물망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연결’과 ‘소통’이 기반이 되어 문화변동 현상을 통한 신문화 창조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는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내연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통합과정에서 경계의 문화, 문화 양극화 현상, 전통문화의 재창조, 민족주의와 종교 간의 갈등양상과 함께 자민족중심주의 해체과정과 조선식 여성주의와 비정치적 민족예술문화 등장과 같은 신문화창조의 과정적 결과물들을 예측하였다. 남북이 다르게 파생되는 문화변동 현상은 결국 문화 상호간의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가로지르기 문화성’을 발견하고 재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유기체적 사회통합의 문화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로지르기 문화성의 내연을 확대하기 위한 재사회화 과정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예견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 생활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호 문화적 적응으로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문화적 이질감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상대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경제특구통일론과 문화교류, 협력 사업이 병행될 필요성은 북한의 경우, ‘돈과 기술은 받아도 사상과 제도는 안 받는다’는 조선식 사회주의 제도의 경직성이 여전히 팽배해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 정착이 ‘한국화’ 혹은 ‘서구화’가 아니라는 북의 문화적 특수성을 일부 인정하고 대화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통합이란 통일이라는 국가적 거시적 목표를 향한 과정적 단계임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은 공동체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 및 갈등과 문제해결방식의 차이점임을 인정하고 갈등구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상호이해 협력과 공통문화의 확대방안적용을 통하여 점진적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의 전문 인력들이 공존하며 일해야 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 인간관계, 직업관, 이질적 가치관, 문화적 차이성, 문제해결 방

식, 노조구성, 노사갈등 — 을 조정할 수 있는 문화적, 심리적 차원의 전문기구 출범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급화된 인적 자원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문화 간의 장벽도 허물 수 있으며 남북의 노동현장이 바로 통일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활교육, 직업교육, 통일교육은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인력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북한의 국제화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의 사회문화통합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루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이상이 상호적인 공존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러한 통일문화 거버넌스를 형성해 가는 ‘가로 지르기 문화성’의 교차범위가 광대해 질수록 남북의 사회통합, 문화통합, 심리통합의 단계는 문화변용과 문화변혁의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 미래형 통일문화는 남과 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가 하나의 획일적 문화형태로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각의 문화의 고유성이 인정되고 수용되어 다양한 문화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자체를 통일문화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끊임없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내부적 변혁을 시도하며 동시에 내부적 가치가 외부적 가치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미래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계동(2006). 『남북한 체제통합론』. 서울: 명인문화사.
- 김국신(2005).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김진계 구술(1990). 『조국-어느 북조선인민의 수기』. 서울: 현장문학사.
- 김영춘, 김성진(2005). 『중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일무(1995). 『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일』. 서울: 대왕사.
- 강일규 외(2002).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1996).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 고정식 외(2004).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리규춘 (2003). 『단군』. 평양: 평양출판사.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연구회편(1997). 『남북한 사회통합-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민족통일연구원(1993). 『예멘 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박순성 외(20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병용권 외(2005). 『남북한 통합 도덕과 교육론』.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 통일연구원 편집부(20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 제도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서영대(1995). 『북한학계의 단군신화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 장우진(1994).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전영선(2005). 『북한민족문화정책의 이론과 현장』. 서울: 역락.
- 조명철(2003).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강현(2000). 『북한의 우리식 문화』. 서울: 당대.
- 최현호(2003). 『남북한 민족통합론』. 서울: 형설출판사.
- 안기성(1998).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서울: 집문당.
- 유지호(2002). “예멘통일의 국제적 성격.”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 유지호(1997). 『예멘의 남북통일: 평화통일의 매력과 위험성』. 서울: 서문당.
- 오기성(1999). 『남북한 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 원승룡(2007). 『문화이론과 문화철학』. 서울: 서광사.
- 이장희 외(2003).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이종석(1995).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 이춘재(1996).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서울: 중앙적성출사.
- 이용필(1995). 『남북한기능통합론』. 서울: 신유문화사.
- 임채욱(1995). 『남북한 접촉과 문화변용』.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체제통합연구회 편(2005).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서울: 백산서당.
- 한국사회학회 편(1999).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한만길(2003).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홍익표 외(2004).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서울: 오름.
- Adler, N. J.(1997). *International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Behavior*. Cincinnati: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 Beck, Ulrich(1991). “Opposition in Deutschland.” B. Giesen & Leggewie. *Experiment Vereinigung*. Berlin.
- Brislin, R. Richard(2000). *Understanding Culture's Influence on Behavior*. New York: Harcourt College Publishers.
- Cleveland, H.(2000). “The Limits of Cultural Diversity.” L. A. Samovar and R. E. Porter(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9th ed. Washington: Belmont.
- Etzionoi, Amitai(1965).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_____ (1968). *The Active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Griffin, E.(1994).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New York: McGraw-Hill.
- Herman, S. & Schield, E.(1961). "The Stranger Group in a Cross-Cultural Situation." *Sociometry*. Vol. 24.
- Haas, Ernst B.(1958).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viland, W. A.(1982). *Cultural Anthropology*, 10th ed. Belmont: Wadsworth.
- Huntington, S. P.(1993). "The Clashes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2.
- Hofsede, G.(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Cultures*. Sage Publication.
- Hondrich, Karl Otto(1991). "Das Recht des Erfolgreichen." *Tagesspiegel*.
- Howel, W. S.(1982). *The Empathic Communicator*. Belmont: Wadsworth.
- Kymlick, Will(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Levin, J.(1975). *The Functions of Prejudice*. New York: Harper and Row.
- Leo, J.(1999). "War Against Warriors." *U. S. News & World Report*. March 8.
- Ling-Ling, Y.(1999). "Ethnic Strife is Not a Geographically Distant Phenomenon." San Diego Union-Tribute. June 10.
- Macionis, J. J.(1998). *Society: The Basic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 Marsella, A. J.(1994). "The Measurement of Emotional Reactions to Work: Methodological and Research Issues." *Work and Stress*. Vol. 8.
- Mitrany, David(1996).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 Moon, Drema G.(2008). "Concept of Culture: Implication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The Glob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ader*. London: Routledge.
- Nye, J. S.(1971). *Peace in Parts :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 Pentland, Charles(1973). *International Theory and European Integration*. New York: Free Press.
- San Diego Union-Tribute(1998). "Racist Sect, Activists Square Off at Rally." July 5.
- Schneider, L. & Silverman, A.(1997). *Global Sociology: Introducing Five Contemporary Societies*. LONDON: McGraw-Hill.
- Sitaram K. S. and Cogdell, R. T.(1976). *Foundat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lumbus: Charles E. Merrill.
- Wenner, Manfred W.(1991). *The Yemen Arab Republic: Development and Change in an Ancient Land*. Boulder: Westview Press.

Abstract

Globalization and the Social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

- From a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Eun Hee Sh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social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by employing a methodology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hermeneutics.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method has been driven by an emphasis on the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cultures in search of the most productive pathways to construct the more reliable and collaborative community in this global ear. As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intensify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field of social-cultural integration of South-North of Korea is increasingly confronted by more fundamental issues of identity, community, and humanity. Culture, along with the political-economic dimension, has come to be one of the dominant issues within the social integration process of South-North Korea.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zing interaction between dissimilar societies of South-North Korea. This paper presents a critical view about the frequent use of South Korea's cultural standard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s a form of hegemony, which is linked with globalization as Anglo-Americanization, trans-nation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 model of social integration has been discussed based on the four representative theories: functionalist, neo-functionalist, systematic theory, and structural analysis to bring up the recreation of the Korean organic model of integration without relying on a particular westernized model. The survival and flourishing of two Koreas depends on the ability to communicate successfully across differences. This paper examines the futuristic forms of cultural integration: culture of distance, restoration of the ancient Korean cultural heritage, cultural bi-polarity, disintegration of ethnocentrism, neo-Korean feminism & sex culture, and conflict between nationalism and fundamental religions. The basic rationale of this paper is on that the mutual referencing and learning of South-North Korea that will be vital to the harmonious social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 Somewhere in the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Kyung Hee University

convergence of the two cultures and perceptions the South–North Korea, they discover the channel of the ‘transversality’ of culture and the meaning of co–existence as well.

■ 논문접수일 : 2009. 03 .18. 논문심사일 : 2009. 04. 20. 게재확정일 : 2009.05.15